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10월 3일(주일) 제1362호

감사와 사랑 넘치는 온누리!

온누리교회 창립 36주년 기념주일 및 추수감사주일 10월 2~3일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감사예배

10월 2일과 3일은 온누리교회의 36번째 생일이자 추수감사주일이다.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설교 영상을 각 캠퍼스로 송출한다. '감사'를 주제로 제작한 특별 영상도 상영한다. 예배에서 선보이는 특순도 풍성하다. 서빙고온누리교회 토요주일예배 1~2부 버금미션과이어, 일요주일예배 1~4부 서빙고 성가사 중창단, 양재온누리교회 일요주일예배 3~4부에서 크룩스(CRUX)가 특순을 한다. 캠퍼스에서도 자체적으로 특순을 한다.

또한 온누리교회 창립 36주년 기념주일 감사예배에

서부터 '축복송'과 '봉헌송'이 달라진다. 축복송은 창조신앙을 강조하는 고백이 담긴 찬양 '형제의 모습 속에' (박정관), 봉헌송은 이 시대 부흥을 간구하는 고백이 담긴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부흥)' (고형원)로 변경된다.

창립기념주일을 기념하는 할인행사도 이어진다. 서빙고, 양재, 인천온누리교회 두란노문고에서는 10월 2일(토)부터 전 품목 1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매년 온누리교회

창립기념주일에 진행되는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는 11월 초에 실시할 예정이다.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하며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감사의 쌀을 전하는 '사르밧 프로젝트'도 한창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사르밧 프로젝트 헌금으로 1억7천만 원(쌀 20kg 2624포대)을 봉헌했고, 그 헌금으로 농어촌 교회에서 쌀을 구입해서 대상자 1,358명(기관포함)에게 나눌 준비를 하고 있다. 농어촌 사역팀에서는 지난달 25일(토)과 26일(주일) 사르밧 프로젝트 협력 농어촌 교회 4곳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감사의 쌀 배송을 준비했다.

사르밧 프로젝트 감사의 쌀은 10월 초 대상자에게 배송될 예정이다. 서빙고 이웃사랑팀과 S브릿지공동체, 브릿지33+공동체, 일본어예배부 청년들은 10월 3일(주일) 택배 배송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감사의 쌀을 전달한다.

온누리교회는 1985년 10월 6일 창립예배를 드렸다.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성경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긍휼을 베푸는 교회',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라는 다섯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사역하고 있다. / 김영선, 홍하영 기자



CGNTV 기독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93년~02년 출생자, 11월 7일까지 접수

CGNTV가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독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1993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이내 출생자만 참여할 수 있다.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이디어 제안 배경, 기획 의도, 제안 내용, 기대 효과 등이 포함된 콘텐츠 제안서를 16:9 형식의 슬라이드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서 아래의 QR 코드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 500만 원, 금상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동상 50만 원의 부상이 수여된다. 11월 15일 1차 결과 발표하고, 12월 3일 최종 PT와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2-3275-9321



접수 QR코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10월 31일까지 2호선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전 세계 크리스천이 함께하는 낙태 반대 기도운동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지난 9월 22일(수)부터 2호선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다.

온누리교회도 이 뜻깊은 기도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섬기고 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기도 봉사자로 참여하고 싶은 성도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타교회 교인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사이트(www.40daysforlife.com, 02-727-2354)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학 권사(양천공동체)는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낙태 문제가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고백했고, 안숙향 권사(서빙고공동체)는 "이번 기도 캠페인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관련기사 2-3면>. 문의: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당신도 당신 가족도'

10월 28일 오후 7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러브소나타 야마가타가 드디어 막 오른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는 '당신도 당신 가족도' (행 16:31)를 주제로 오는 10월 28일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야마가타 야마긴현민홀(야마가타현종합문화예술관)에서 이원 생중계로 진행된다. 10월 27일(수) 러브소나타 전야제 '가스펠 나이트'에서는 사토 아키라 목사가 '광야에 길(사 43:18~21)'을 주제로 설교한다. 10월 28일(목) 러브소나타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10월 25일(월)부터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예배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해야 한다. 문의: 02-570-7415



생명을 위한 소중한 한마디

•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흉대 땅에서 기도하는 내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저희가 마음속 돌을 내려놓고 깨어 사랑으로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robugi

• 다른 소속 몇 분과 연합하여 생명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전에 옆집 사시던 2남 1녀를 키우신 노 권사님께서 9번이나 낙태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낙태로밖에 해결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는지 모르지만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동참하며 낙태는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모두 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 이영자

•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며 법이며 상식이 되는 시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지켜내길 기도합니다. / KSL

•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생명을 위한 작은 기도의 불씨가 큰 성령의 불길에 되어 타오르길 기도합니다. / 윤마리아

• 10주 된 태아의 실제 발 크기의 뱃지를 보는 순간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요. / KHC

• 낙태 반대운동과 기도에 참여하면서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절감하고 더 치열히 나아갈 것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 도윤

• 부르신 자리를 통해 그 누구도 아닌, 거룩하지 못한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느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그분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 우정현

•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행사에 참여하여 캠페인과 기도로 동참하고 시민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심재이

• ‘프로조이스’ 선택우선 & 낙태찬성’ 아니고, ‘프로라이프: 생명우선 & 낙태반대’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 김유선

•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 되어 흐르는 것 같습니다. / 안숙향

•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기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가슴 벅차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손수연

• 연합 기도의 힘! 생명을 위해 릴레이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 무명

• 오늘 내린 빗물이 온 땅을 적시고 흘러가듯 40일의 기도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이 그곳을 지나는 이들의 마음을 적시고 이 땅에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 무명

• 나는 46년 전 아들딸 구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는 분위기에 셋째를 품지 못하고 무심히 떠나보낸 잘못과 죄의 용서를 캠페인 박스 안에서 하나님과 셋째에게 빌었습니다. / 무명

•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 없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 서원열

• 오늘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섬기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 피켓 든 것이 생명 살리는 일이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은주

• 바람에 휘청이는 캠페인 피켓을 손으로 꼭 붙잡아 세우며 결단했습니다. “주님의 창조 질서를 수호하는 것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대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 윤혜인

• 생명을 지켜내는 번성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 이기복

•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대한민국을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 이봉화

•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피켓 들고 중보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장정화

• 세상의 집약체 흉대에 넘쳐나는 젊은이들 가운데 주가 일하심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 최지연

• 토요일이라 그런지 젊은 커플이 많은데 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캠페인에 한 모퉁이가 되어 섬기게 되어서 나오길 잘했어요. / 현진철

• “젊음은 젊은이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아깝다”라고 이재훈 목사님께서 인용해주신 말씀이 생각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그런지 연남동에 젊은이들로 물결을 이루는 것을 보며, 자신의 생명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 이미하

• 많은 인파 가운데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안철민

•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 주홍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온누리교회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에 성함과 한 줄 소감을 남겨주시면 온누리신문과 온누리교회 SNS 계정(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게재됩니다.

그 현장을 가다

태아의 생명과 낙태 없는 세상을 위하여!

10월 31일까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9월 22일(수),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아주 뜻깊은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바로 그것이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낙태 반대와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호소하는 침묵기도 시위운동이다. 10월 31일까지 40일 동안 이어진다. 전 세계 64개국 900여 개 도시에서 100만여 명 성도와 2만 개 교회가 8천 번 기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 기도 캠페인을 통해 태아 약 19,000여 명이 낙태로부터 구조됐고, 112개 낙태 시설이 폐쇄되는 결실이 있었다. 전 세계 크리스천이 함께하는 낙태반대 기도운동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한국에서 처음 열리고 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 다녀왔다.

“후회는 없어. 그 순간엔 진심이었으니까. 틀린 선택은 없어. 인생은 내 맘 같지 않아도 선택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홍대입구역 3번 출구로 향하는 지하 보도에 붙어있는 소셜데이팅 앱 광고문구다. 이 광고 문구가 왠지 모르게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며 낙태 찬성론자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무래도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하 기도 캠페인)에 대한 기대와 우려 때문일 것이다.

기도 캠페인이 열리고 있는 홍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왔다. 추석 연휴여서 그런지 사람들로 북적이던 홍대 거리가 한산했다. 그곳에 커다란 피켓을 든 사람이 눈에 띄었다. 기도 봉사자다. 피켓에는 “태아의 소중한 생명과 낙태 없는 세상을 위해, 평화적으로 기도하는 국제 기도 캠페인”, “We pray for you and your baby(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피켓을 든 기도 봉사자 외에도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주변과 경의선숲길 산책로 곳곳에 기도 봉사자들이 있었다. 어떤 이는 지하철역 입구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경의선숲길 벤치에 성경책을 펴고 무릎 꿇고 고개 숙여 기도하고, 또 어떤 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리며 기도하기도 했다. 기도하는 모습,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낙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쇼맨십이 아니기를...” 기도 캠페인을 향한 시민들의 바람

‘이 기도 캠페인에 시민들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호응해줄까?’

기대했지만, 시민들은 큰 관심 없이 지나쳤다. 실망은 잠시. 먼발치에서 피켓을 바라보던 한 시민이 기자에게 다가와 질문했다. 도대체 저게 무엇이기에 사진을 찍고 있냐고 말이다. 기자가 행사 취지를 알려줬더니 그 시민은 “낙태 이슈에 대해 그다지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낙태 찬성이나 반대를 떠나서 이런 운동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 캠페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낙태의 폐해를 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 다만 인상적인 캠페인인 만큼 단순히 쇼맨십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기자의 눈에 네 명의 여대생이 들어왔다. 그 녀들은 무심히 지나치는 여느 행인들과 달랐다. 피켓 주변에서 10분 가까이 멈춰서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사실 그 녀들을 보는 순간 덜컥 걱정이 들었다. ‘낙태를 찬성하는 단체에서 나온 건 아니겠지?’ 그 녀들은 이번 캠페인에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왔다고 했다.

“낙태 찬성론자들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시위하는 것처럼, 낙태 반대론자들도 왜 낙태를 반대하는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낙태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 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운동을 하는 걸 보면서 낙태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기도 캠페인 현장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걸음 했다. 그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정치와 종교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분열하고 대립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말 못하고 의지할 수 없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이번 운동에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미학 권사의 안타까움과 안숙향 권사가 흘린 눈물의 의미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열린 역사적인 기도의 현장에 함께 한 기도 봉사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미학 권사(양천공동체)는 9월 22일과 25일 기도 봉사를 했다. 이미학 권사는 그곳에서 침묵기도를 하면서 젊은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 설교 중에 ‘젊음을 젊은이들에게만 맡기기에 너무 아깝다’고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기도 봉사를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와닿더라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열리는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기도 봉사자가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 반대를 호소하는 피켓을 들고 침묵기도를 하고 있다.

생명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귀한 청춘을 그들에게만 맡겨두기에는 그들이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캠페인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애들은 어른들의 말(잔소리)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피켓과 침묵 기도 시위로 접근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미학 권사는 더 많은 성도들이 이번 기도 캠페인에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그동안 제가 생명의 소중함이나 낙태 반대에 대해 피상적이고 가볍게 기도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낙태 문제는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처음에는 길거리로 나가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해보니까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눈 감고 기도하고 있노라면 하나님과 저의 시간만 남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뜻깊은 기도운동에 함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숙향 권사(서빙고공동체)는 기도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눈물이 날 상황이 아닌데 기도하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내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눈물임을 깨달았습

니다. 낙태를 쉽게 생각하거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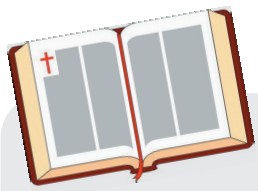
안숙향 권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싶다고 했다.

“이번 기도 캠페인이 40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섬김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성도가 기도로 헌신하고, 더 많은 교회가 이 운동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31,947,550 VS 9,722,650

전 세계 다양한 영역의 통계 수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세계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나온 ‘올해 낙태한 건수(31,947,550)’와 ‘올해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9,722,650)’다. 올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3.3배나 많은 태아가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채 죽어갔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태아가 낙태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태아의 소중한 생명과 낙태 없는 세상을 위해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기도해야 한다. 잊지 말자. 낙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코로나19 팬데믹은 언젠가 종식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혹독한 재난을 겪고도 아무런 유익과 변화를 얻지 못한 채로 그 이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일하게 팬데믹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각성과 깨달음,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동일한 DNA를 가진 생명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DNA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진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한 생명을 위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치가 있습니다. 사회 경제가 붕괴되도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대가를 기꺼이 치려야 합니다. 천하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모두 체험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든 사람의 생명은 자연생태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연에서 기원한 것으로 본다면 기후 온난화나 기후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팬데믹이 끝나고 그 이후 다가오는 또 다른 물결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환경의 위기입니다. 생태계의 붕괴 등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시각이 결국 스스로의 생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바라보며 인간의 올바른 위치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팬데믹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재난이 노아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홍수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세상은 홍수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던 그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대격변의 흔적들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물도 이제는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는데 1시대에 200년씩 수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인간의 수명이 백 년 대로 줄었습니다. 과학 기술 발전과 의학의 발전으로 100세 시대를 내다 본다고 하지만, 아직 평균수명이 백 세 미만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 변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대홍수로 인한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게 된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이 팬데믹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홍수 심판 이후 생존한 여덟 명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노아 언약이 무시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약속이 담겨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부터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각과 관점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질서를 다시 기억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경외하든, 하나님을 등지든, 모든 피조 세계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일반 은혜로 세상을 대하신다는 것이고, 이 은혜 가운데 포함된 하나님의 명령과 창조질서를 우리가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일반 은혜를 복음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이 땅에 번성한다

오늘 본문은 일반 은혜마저 거부하는 인생이 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졌던 목적은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복의 중심이 인간이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속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생명이 땅에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1절).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 땅에서 번성하라”(7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이후에도 창조 목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들의 생명이 어떤 생물보다 번성하고 가득한 것입니다. 기근과 가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산 아제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에 그보다 심각한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잉태된 생명을 태어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죽게 하는 것은 이 명령의 정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이른바 ‘낙태’라 불리는 것입니다. 또한 태어난 생명을 유기하고 돌보지 않는 죄악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저출산 위기가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출산 위기는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치 공약으로 세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난 15년 이상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태어날 수 있고, 마땅히 태어날 권리가 있는 생명을 태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죽게 합니다. 그 생명의 숫자가 전 세계 코로나19 희생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명백한 모순이자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인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연약할수록 더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태어나고 번성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존중한다면, 낙태가 건강한 방향으로 심장이 박동한 이후에는 낙태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출산 위기를 금방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인식을 다시 바뀌어야 합니다. NGO 더멋진세상을 비롯한 여러 NGO들이 어린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외 곳곳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순 아닙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입니다.

니다.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돌보시기 위해서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살아 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2-4절).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홍수 심판 이후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덟 명만 살아남고 모두 죽임당한 처참한 심판 이후 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동물들에게 받는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인간들에게 지혜와 창의력을 주셔서 야생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동물들에게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야생동물도 인간들이 오면 일단 피합니다.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무조건 싸우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일단 인간들이 다가가면 피합니다. 인간들이 공격하면 공격하겠지만, 인간들이 나타나면 일단 피합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힘으로 붙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동물들이 인간들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었고, 동물은 인간을 닮은 형상 일부를 넣어 주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거꾸로 해석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인간의 형상 일부를 동물의 세계에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은 동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여덟 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동물들의 위협으로부터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있는 동물을 인간에게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14면에 계속)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될 것”

장로사관학교와의 만남 그리고 의미

매주 토요일 새벽,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피택장로 47명이 ‘아주 특별한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장로사관학교를 새벽예배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로사관학교를 수료하고, 장로고시를 패스하면 올해 12월 온누리교회 장로로 세워지는 피택장로들은 아주 특별한 새벽예배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기도하고 훈련받고 있다. 장로사관학교에 참가 중인 훈련생과 실행위원들(노치형 목사, 임희창 담당장로, 강경국 장로, 강은철 장로, 박희준 장로, 최호림 장로)을 만나 장로사관학교의 의미에 대해 취재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장로(長老, elder)는 목사와 함께 성도들을 심방하고, 교회 운영과 징벌을 담당하는 장로교의 직분이다. 장로를 세우는 것은 교회와 장로로 장립 받는 성도 모두에게 뜻깊고 귀중한 일이다.

온누리교회는 2003년부터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될 것’(벧전 5:2, 3)을 주제 삼아 장로사관학교를 열고 피택장로들을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있다. 장로사관학교에서는 온누리교회 목회 철학과 사역을 공유한다. 또한 피택장로들이 ‘깊은 영성’, ‘따뜻한 감성’, ‘절제된 창조성’, ‘아름다운 팀워크’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장로사관학교에서는 ‘New Coding’을 주제로 온라인 수련회를 개최하고 비대면 아웃리치, 청년 선교, 가정사역, 기독 OTT ‘풍당’ 활용법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학교

“내가 할 수 있을까?”

장로로 피택 된 성도들이 느끼는 공통된 심정이다. 기대, 두려움, 설렘으로 가득한 피택장로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더 잘 섬길지를 고민한다.

배승호 피택장로(부천민음공동체)는 피택장로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열떨떨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장로사관학교에서 훈련받으며

서 ‘내가 더 섬겨야 할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사실 처음에는 아주 열떨떨했습니다. 내가 장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요. 그래도 지금은 장로사관학교에서 배우고, 선배 장로님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와 대학청년부에 큰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를 내려놓고, 공동체와 교회,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광제 피택장로(양천공동체)도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다.

“올 한 해 장로사관학교에서 훈련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합당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필요하시는 곳에서 땀 흘리는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이 대물림 되는 학교

장로사관학교를 수료한 장로들은 장로사관학교를 ‘장로사랑학교’라고도 부른다. 장로사관학교를 섬기는 선배 장로들의 사랑이 피택장로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올해 장로사관학교에서는 임희창 장로(동대문중앙공동체)와 2019년 임직된 장로들이 조



장로사관학교에서 2021 피택장로들이 선배 장로들과 교제하고 있다.

장과 스태프로 섬기고 있다. 2019년 임직 장로들은 2017 임직 장로들에게 받은 사랑을 온전히 아니 더 크게 전하려고 애쓰고 있다.

김영옥 피택장로(성북공동체)는 조장 김기섭 장로(과천의왕공동체)와 교제하면서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제가 동기 피택장로님들에 비해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저보다 성품 좋고 탁월한 집사님들이 많은데 제가 장로 피택을 받으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부족한 점이 많고,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기섭 장로님께서 ‘장로는 늘 영적으로 힘들어서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도전이 되고, 위안이 됐습니다. 그 날부터 큐티와 새벽기도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펼치는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올해 피택장로는 47명이다. 10월 16일 장로사관학교를 수료하고, 노회에서 개최하는 장로고시를 패스하면 12월 4일 장로장립식에서 온누리교회 장로로 장립된다. 그리고 다음 장로사관학교에서 피택장로들에게 사랑을 대물림 할 것이다.

당회서기가 피택장로들에게



정진호 당회서기 (OCC공동체)

온누리교회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Acts 29’를 통한 선교와 섬김을 소명으로 올인해왔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주신 재정은 선교와 섬김의 사역에 100% 지출하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시대 한국 교회가 온누리교회에 거는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

이지만 참으로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또한 장로로서 책임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온누리교회를 보면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사역의 정교함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섬김과 순종의 정신을 제일로 꼽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누리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장로로서, 피택장로님들께 바람직한 장로상에 대해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Doing보다 Being을 원하십니다. 장로로서 사역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아버지의 전에

예배자, 존중과 배려, 감사하는 장로!

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장로 장립 이후 교회에서 많은 책임을 부여받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돌아해보면 진정한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날마다 앉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독대하는 시간이 참으로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장로사관학교에서 온누리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경험하면서 사역에 열정과 부담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둘째, ‘Character Above All!’ 사회에서도 리더의 제일 덕목은 ‘성품’입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격의 성숙, 즉 날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온누리교회의 장로가 갖춰야 할 인격의 덕목인 ‘존중과 배려’가 풍성한 장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빌 2:3).

셋째,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장로가 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입술로 예수님을 이름을 높여 드리는 입술의 열매가 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히 13:15).

창조신앙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기!

진리로 자유롭고, 헌신과 희생으로 모두를 복되게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학 교 의과대학 교수)

창조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창조를 알면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가 인간의 범죄로 훼손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악에 대해 놀라지 않고, 그렇다고 실망하고 포기하지도 않는다. 이미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처음과 끝을 알고 있으니 중간 과정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드라마 애청자가 드라마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것과 비슷하다. 드라마의 맥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같은 장면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드라마의 맥락을 알고 있어야 중간에 전개되는 스토리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창조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드라마 애청자와 같이 인류 역사의 맥락을 알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창조신앙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인지도 모른다. 드라마와 같은 역사가 나에게 펼쳐질 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갔을 때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창조신앙의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일생을 마쳤을지라도 결코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의 표현처럼, 그릇이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 없듯이 모든 상황에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다. 물론 요셉도 자신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고, 바로의 신하들에게 탄원한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분의 결정이 나의 뜻과 다르다고 내가 원하는 때에 바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없다. 그분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들을 향한 그분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분의 선한 뜻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만이 가진 특별한 창조목적과 존재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이뤄지도록 훈련시키고 전진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관자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때도 반드시 필요하다. 모세의 예를 생각해 보자.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놀라운 신앙의 결단을 하였다. 그런데 그 결단 이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만다. 모세의 결단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존경받을만 했지만

태양계를 질서정연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코페르니쿠스를 비롯해서 인류 역사에 크게 기여한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믿었고, 그로 인해 과학의 큰 진보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설명하려는 진화론이 교육과 학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지식의 탐을 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진화론은 하나님 대신 기원을 설명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일 뿐이며, 증명되지 않은 이론을 과학이라고 포장할 뿐이다. 과학적 발견들을 하나님의 설계로 설명하면 단순명료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진화론자들은 수많은 논문을 써서 복잡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면서 혼란만

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따뜻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창조신앙의 지혜는 창조신앙에 바탕을 둔 지식과 지혜를 세상에 나눠주는 것이다. 가정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자녀를 갖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 사회와 국가가 이런 일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일에도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환경오염을 막고 창조질서를 복원하는 행동에도 세상의 논리가 아닌 기독교적 논리를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창조신앙의 지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 몇 년 전 유행했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집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리주의와의 논쟁을 머리 아프게 다루었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공익’ 모두 매우 중요한 것이며,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귀중한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이 책이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한다. 합헌 결정을 내린 근거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렇다면 왜 국가가 결혼에 대하여 관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결혼이 개인의 선택 문제라면 국가가 결혼제도를 관리하지 말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결혼을 관리하는 것은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사회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동성 결혼 합헌 결정은 건강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국가사회의 노력과는 상반된 가치를 지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자유와 공익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 저자는 그 해결책으로 ‘공동체’를 제안하였다. 공적인 이익에 의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유의지로 희생을 선택해서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동체를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가? 바로 교회 공동체만이 세상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저자 자기도 모르게 결론 내리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교회 공동체를 지금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진정한 자신의 희생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지 안타깝다.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세상이 바라는 공동체의 모델이라고 교회를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롭고, 헌신과 희생을 통해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고



만, 믿음의 결단 이후 모세의 행동은 급했고 잔인했다.

창조신앙의 지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해도 우리의 힘을 사용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면 이런 행동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유함과 겸손함, 공의로움과 거룩함, 거짓 없는 깨끗함과 오래 참음, 무엇보다 사랑의 능력이 나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가?”

창조신앙의 지혜와 교회 공동체

창조신앙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코페르니쿠스가 천년 이상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할 뿐이다. 최근 유전자 정보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복잡하고 절묘한 설계들은 진화론적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진화론은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연과학의 범주를 벗어나 인문학에서도 주된 이론이 되어버렸다. 인간의 죄악과 다양한 행동들을 진화론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은 결국 인간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사람을 물질과 동물의 수준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인간의 존재 이유는 쾌락일 뿐이라며 인간의 성적인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결혼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또한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남자와 여자라는 기준 자체가 편협한 것이고, 스스로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교육하고 있다. 창조신앙의 지혜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속에서 더욱 돋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조신앙의 지혜를 세상에 잘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

“라떼는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자화상이자 정체성”

“멘토님과 친해지고 싶은 청년입니다. 멘토님이 해주시는 좋은 말씀을 듣고 싶는데 선뜻 다가가는 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면을 빌려 궁금한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멘토로서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청년부 멘토로 섬긴 지 벌써 11년이 지났다. 오랜 시간 청년들을 섬겼는데도 여전히 ‘멘토는 누구인가?’에 대해 스스로 묻곤 한다. 멘토를 대체할 우리말이 없는 것을 보면 ‘멘토 멘토링’이란 말이 우리에게 생소한 문화임이 분명하다.

성경에 나타난 탁월한 멘토는 예수님이다. 많은 이들의 고통과 문제들에 대해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로 우리의 상상을 매번 뛰어넘는 대안을 현장마다 제시하셨다. 그분의 삶이 제자들에게 참 멘토링이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멘토링을 받고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생명을 드리는 곳까지 갔다. 최고의 멘토링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과 노력을 나누

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傑作)이다. 그런데 우리의 자화상은 일그러지고 비뚤어져 있다. 이새의 눈에 보인 다윗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왔을 때 그는 다른 일곱 아들은 불렀는데 막내 다윗은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 부르셨던 기드온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며 가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했다. 모세는 또 어떠한가?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는 것을 여러 번 거절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일로 죄책감에 빠져 결국 생업지인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다.

부모의 잣대, 세상의 평가, 실패의 경험, 비교 의식으로 생겨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우리의 진짜 자화상을 왜곡한다. 금수저나 흙수저, 출신 지역, 학교, 직업이나 직장, 명성, 재물이 우리의 이름표가 되기도 한다.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거짓의 삶을 거침 없이 살아간다. 그러나 내면에 감춰진 진실 때

문에 깊은 절망과 공허, 외로움이 우리 안에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자화상을 회복하는 것 아닐까? 자화상이 변하면 무엇보다 언어가 바뀌게 된다. 우리의 언어가 곧 ‘우리’이기 때문이다. 축복과 감사, 위로와 격려, 사랑과 절제, 온유와 겸손, 기쁨과 친절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언어 DNA다. 창조주만이 피조물의 정체성을 지으신 목적대로 정의할 수 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상황에 따라 변하는 자화상은 허상일 뿐이다. 세월이 가고 환경이 바뀌면 그런 정체성은 무너질 뿐이다.

오늘 이 땅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온유한 자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자 정체성이다. 위기의 본질은 자체 제작한 가짜 자화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과 가정, 세상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살릴 유일한 대안이다. 결국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자화상을 회복해가는 동반 여정이다.



박일환 장로
(요셉청년부 멘토)

***‘라떼는 말이야’는 청년들의 삶과 신앙적인 고민에 대해 대학청년부 멘토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에 비추어 조언과 위로를 건네주는 코너이다. 고민이나 질문 보내실 곳: joo@onnuri.org**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팀워크가 좋은 부부

가장 조화롭고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팀워크가 좋은 부부’라고 표현할 수 있다. 부부는 서로 팀워크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팀워크 수준에 따라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분위기와 태도가 달라지고, 경기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몇 년 전 올림픽 농구 결승전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최종 승리를 거두었던 우승팀의 팀워크는 다른 팀에서 볼 수 없었던 최고의 모습이었다. 승리한 팀은 경기 중에 수시로 선수 전체가 어깨동무하고 큰 원을 만들어서 ‘대화’하고 ‘격려’했다. 점수를 얻었을 때도, 점수를 잃었을 때도, 파울을 했을 때도, 파울을 당했을 때도, 그들은 잠시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어깨동무하고 큰 원을 만들어서 서로 격려하고, 대화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물론 실력도 있었지만 실력과 함께 팀워크가 좋아서 최종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만일 그 팀이 우승하지 못하고 패배했다 라도 팀의 관계와 끈끈한 팀워크는 결코 깨지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부부관계도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간다면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다. 부부는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부부 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해가는 매우 특별한 관계이다. 그런데 한 팀으로서 늘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북돋아 주는 ‘팀워크 좋은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다. 한 몸, 한 팀으로 좋은 팀워크를 이루며 살기보다 갈등과 다툼, 미

움과 단절을 경험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다. 어려움을 겪는 부부라면 다시 한번 부부의 좋은 팀워크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가 좋은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명한 목표’이다. 부부의 결혼 목표가 무엇인지 늘 돌아보고 서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상대를 존중하는 가정’, ‘주님 닮아 서로 잘 섬기는 남편과 아내’ 등 결혼 생활의 합의된 목

**팀워크가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팀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수시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독이며,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표를 서로가 인식하고, 목표한 방향을 향해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의 팀워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합의된 공통의 목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유익하다. 또한 갈등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부부의 결혼 목표를 이루는 데 정말 중요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다. 부부가 좋은 팀워크를 만들지 못하고 서로 소리 지르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싸울만한 가치가 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부부의 팀워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목표와 함께 중요한 것이 ‘팀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결혼했다면 혼자만 살아가는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고 수용해야 한다. 개인 성향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서 일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 있겠지만, 부부가 좋은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고, 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배우자를 소중한 팀원으로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분위기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배우자를 내 인생

주고, 다독여 주었던 것처럼, 부부도 수시로 서로 격려하고, 다독이는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줄 필요가 있다. 경기 중에 선수들이 자기주장만 하고 팀원의 실수에 즉각적으로 힐난하고 책망했다면, 그 팀은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다. 팀원이 실수했을 때 책망보다 위로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부부도 서로 책망과 질책하기보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시간을 내서 어느 정도의 부부 팀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다. 최근 있었던 가정의 갈등 상황을 기억해보라.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생각날 것이다. 육아에서 발생하는 이슈들, 청소, 시댁·처가 문제, 배우자의 취미, 재정 사용, 배우자의 습관, 상처 주었던 말, 배우자의 불편한 행동 등 부부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이슈 가운데서 좋은 팀워크를 발휘했는지, 아니면 서로의 자존심과 자아상을 깔는 말과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고 좋은 팀워크를 만들어 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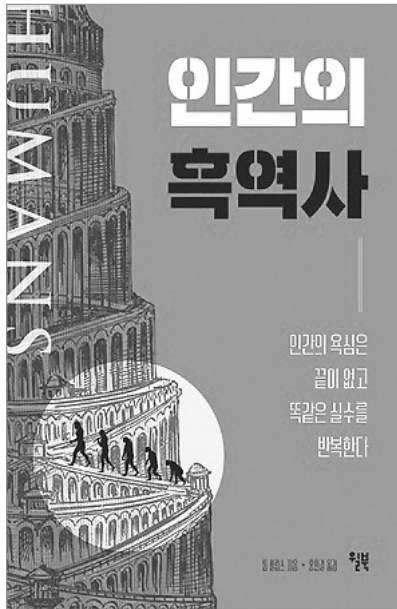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어깨동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책 읽어주는 목사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겸손’



〈인간의 흑역사〉

톰 필립스 저 | 월북 | 14,800원

“9세기 북유럽의 장수였던 ‘천하장사 시구르드’는 적장 ‘빠드렁니 마엘 브릭테’의 목을 베어 말안장에 매달고 의기양양하게 귀환했다. 그러나 마엘 브릭테의 빠드렁니가 말 타고 달리던 시구르드의 다리를 계속 긁었고, 그 상처의 감염으로 시구르드는 며칠 만에 죽고 만다. 천하장사 시구르드는 자기가 이미 죽인 적에 의해 죽임을 당한 불

명예스러운 주인공으로 전쟁사에 길이 남았다.”

오늘 소개할 책 〈인간의 흑역사〉 12페이지에 적힌 이야기다.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유머러스한 역사 지식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 시선을 끄는 이 이야기를 읽고 얼마나 구미가 당겼던지 의자를 당기고 앉아 하루 만에 이 책을 다 읽어버렸다.

역사 속 인간의 다방면에 걸친 바보 같은 짓을 유머러스하고 운동성 있는 필체로 써 내려간 이 책은 런던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이자 작가인 톰 필립스가 썼다. 저자는 스스로 지적이라고 자부하는 인간들(호모사피엔스)이 사회, 문화, 과학, 외교,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신랄하게 파헤치고 있다.

인간의 흑역사 몇 개만 예를 들어보자. 1960년대 아프리카 여러 학교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웃는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 1년 반 동안이나 임시휴교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일, 러시아의 표도르 3세가 장난감 병정놀이에 빠져 자기 장난감을 갇아 먹은 뒤 한 마리를 군법회의에 회부한 일, 인간의 편리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83억 톤이 넘고, 지금도 지구 표면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진실 등 정말 웃지 못할 바보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 싶을 정도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다. 자본주의와 편리성의 노예가 된 인간의 대표적인 흑역사 한 가지를 소개한다. 1944년 천재공학자이자 화학자이고 발명가이며 지금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토마스 미즐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다. 그는 1910~20년대 자동차 엔진의 노킹 문제(엔진에서 딱딱소리가 나거나 울컥하는 현상) 해결에 매진했다. 그는 이런 결함의 문제를 기계적인 것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연료의 불균일한 연소 때문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우연히 요오드를 뿌려봤고 소가 뒷걸음치다 쥐 잡는 격으로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당시 요오드는 너무 비싸고 대량생산이 어려웠기 때문에 연구를 거듭하다 ‘납’을 해결책으로 생각했고, 내친김에 납이 들어간 유연휘발유를 개발했다. 납의 유독성은 치명적이긴 하지만 그들은 오로지 노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이 함유된 유연휘발유를 개발했다. 그러다가 사회적, 환경적인 큰 경고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들은 에탄올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추가로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에탄올을 선택할 수 없었다. 왜? 그놈의 ‘돈’ 때문이었다. 에탄올은 제조가 너무 쉽고 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품화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래서 납이 섞인 연료에 집중하고 본인도 납중독으로 인해 몇 달을 쉬어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후에

이 납이 들어간 유연휘발유 생산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가 전신마비 증상을 보였고 수십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납이 들어간 유연휘발유 제조사들은 이것을 안 쓰는 차는 똥차(좋지 않은 차)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고, 미국에서 허가된 기술이라고 사람들을 부추겼다. 이런 경악스러운 판매 전략 탓에 이 유연휘발유는 순식간에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다. 192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7,000만 명의 아동이 중독 수준의 혈중 납농도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더불어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 천재 발명가 미즐리는 두 번째 살인무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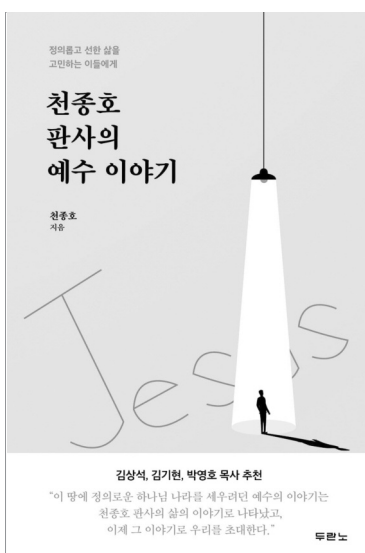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인간이 자기 지식과 지혜, 욕심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지 한눈에 들어온다.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는 모습이다. 겸손이야말로 새로운 기회로 들어가는 문이다. 제발 헛발질을 멈추고 겸손하자!



임용성 목사
(서산온누리교회)

두란노 신간

예수가 말하는 정의롭고 선한 삶



〈천종호 판사의 예수 이야기〉

천종호 저 | 두란노 | 18,000원

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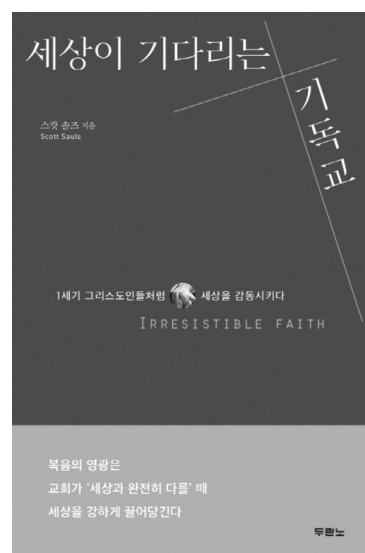
내가 믿는 것이 곧 정의인 시대, 예수가 말하는 정의롭고 선한 삶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소년범의 대부’, ‘호통 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 판사가 전하는 예수 이야기다. 법조인인 그가 예수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 이야기에 빠져 성장했고, 예수 이야기를 법정에서 실천해 왔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처럼 예수를 더 잘 알기 위해 사복음서를 있는 그대로 따라 읽고 묵상한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은 총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 1, 2, 3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가급적 신학적인 색채와 인본주의적 요소는 첨가하지 않고 마가복음 말씀만으로 예수의 일생을 풀었다. 이야기 4는 마가복음 이야기만으로 풀여낼 수 없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로 뽑아 정리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법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크리스천답게 살기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

스캇 솔즈 저 | 두란노 | 15,000원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는 고백을 듣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야 한다. 세상을 감동하게 했던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배우고, 매력적인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가 한 말이다. 지금도 별만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좋지만 예수쟁이는 싫다”고 말한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야”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듣는다. 유독 교회와 크리스천이 손가락질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기다리는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

교회와 크리스천이 항상 지금처럼 손가락질만 당한 것은 아니다. 1세기, 우리가 존경하는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동시에 존경을 받았다. 그들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기를 결단하고,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자신을 희생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늘 함께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본을 따라 살았을 때 세상은 기독교를 인정했다.

지금도 세상은 ‘크리스천답게 살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이웃사랑'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학청년부 '추석 노숙자 도시락 섬김'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18일, 17명의 청년들이 서울역과 남대문5가 쪽방촌에 모였다. 추석을 맞아 노숙자와 쪽방촌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 메시지가 담긴 도시락을 나눠주기 위해서였다. 하나의 마음으로 시작한 작은 봉사

와 섬김이 넘치는 감사와 간증을 만들었다. 여름 아웃리치가 끝나고 아쉬운 마음에 “우리 이번에는 어떤 곳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라고 한 말에 누군가 “추석 명절이니까 소외된 곳을 찾아볼까?”하고 화답했고, 이 말에 우리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남대문5가와 서울역 노숙자’가 생각났다. 명절인데 만날 가족도, 친척도 찾아와주는 이도 없어서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게 시간을 보낼 그분들에게 위로와 따뜻함을 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봉사를 준비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봉사를 준비했다. 그래서인지 유난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이번 섬김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시간을 누리



지난 추석 연휴,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이 서울역 노숙자와 쪽방촌 주민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줬다.

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다. 도시락을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오병이어

기적과 견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모두 처음 가는 곳이고, 그곳의 상황을 잘 몰랐기에 답사도 했다. 그곳에서 마주한 노숙자들과 쪽방촌 주민들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해졌다. ‘내가 만약 그분들이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보았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우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혼자가 아님을 알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것 같았다.

드디어 봉사 당일, 설레는 마음으로 현장에 도착했다. 돌발상황도 있었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모인 우리였기에 손발이 척척 맞았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모든 상황이 잘 해결되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선

물(도시락, 수건, 양말, 떡, 물티슈, 직접 만든 전도지)을 전달해드렸을 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셨다. 도시락을 거의 다 나눠줬을 때 한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내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눈물이 다 나. 고마워. 청년들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건강해.”

골목길 어귀까지 나와 우리에게 인사를 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내가 뭐라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곳에 사랑의 위로를 전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함께 한 팀원들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느꼈다. 그래서 더 행복하고 감사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셨다. 부족함이 없이 아니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작은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돕는 자를 붙여주었고,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벌써 다음이 기대된다. 작은 우리의 발걸음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 이선경 자매(여호수아공동체)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큐티스쿨 수료 간증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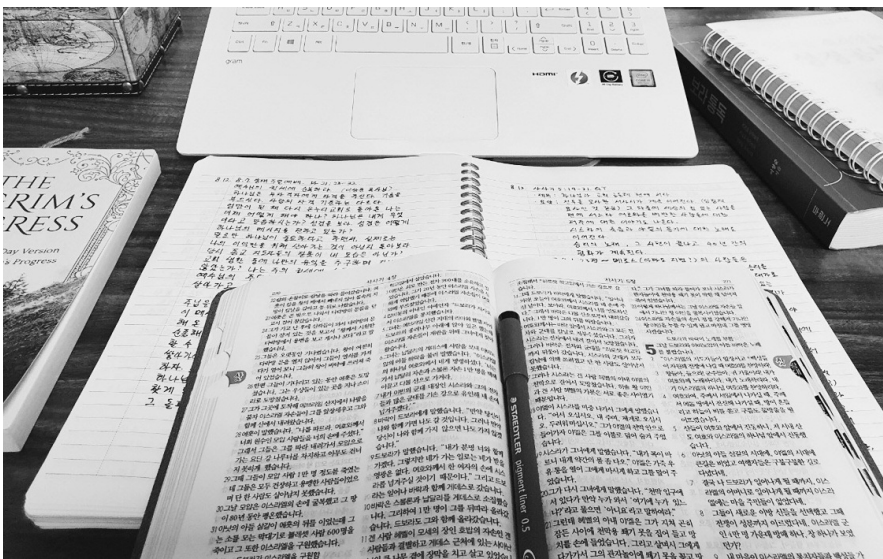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다. 큐티를 꾸준히 하지 않았을 때는 솔직히 거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나는 무려 25년 전 가을 처음 큐티를 접하고 <생명의 삶>을 구독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어설픈 말쑤를 보는 듯 마는 듯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손을 놓아버린 상태였다.

얼마 전 15년 만에 온누리교회로 돌아오면서 새신자로서 첫 과정부터 하나씩 다시 시작했다. 가장 먼저 채운 첫 단추는 ‘큐티’와 ‘일대일제자양육’이었다.

더웠던 이번 여름, 큐티스쿨에서 가장 기초부터 다시 배웠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 세상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다고 하면 한 소리 들을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는 재수 삼수가 허용되어서 참 좋다. 우선 큐티의 목적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배웠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몇 년 이상 매일 아침 성경 말씀 먹기를 하지 않으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 기아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번 큐티스쿨을 통해서 기아에서 벗어나 정말 감사하다.

큐티스쿨에서 훈련받으면서 매일 말씀을 먹

말씀으로 등 따습고, 배부른 행복한 성도의 삶



장진규 성도(수원온누리교회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방법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삶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 노치형 목사님의 강의와 함께 큐티 나눔을 했던 성도님들을 통해 멀게만 느껴지던 것들이 조금씩 가능해졌다.

정말 오랜만에 하용조 목사님의 책을 읽었다. 내가 읽은 책은 큐티스쿨 추천 도서 중 하나인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인데 모든 내

용이 정말 유익했다.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여덟 가지 이유를 다시 정리하면서 내가 얼마나 성도답지 않게 살고 있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사실상 나는 여덟 가지 이유 대부분에 해당했다. 당연히 큐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신앙적인 방향에까지 이르렀던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큐티가 자아비판을 하는 시간이 아

님을 배웠다. 매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더 기쁘게 하루하루 같이 살아갈 것인지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 삶의 승리,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주님의 성품과 인격과 삶을 닮기, 주님의 사역을 감당 등 큐티의 목표들을 조금씩 성취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나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절감하기에 성령님께서 내 허리에 굵은 쇠사슬이라도 연결해서 계속 끌고 가시기를 바란다.

큐티스쿨을 마치고 예전보다 훨씬 개선된 큐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탈색 주저앉는 날이 많다. 그럴 때는 그 쇠사슬이 얼마나 복된 생명줄인지 알게 되고, 다시 붙들려서 일어난다. 매일 배부르게 말씀으로 살찌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혹시 아직 큐티스쿨을 하지 않은 새신자들이 있다면, 나처럼 어설픈 큐티로 신앙의 방향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큐티스쿨을 신청하시기를 강력히 권한다. 분명 말씀으로 등 따습고, 배부른 행복한 성도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 장규진 성도(수원온누리교회)



코로나19,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 온두라스 허리케인 구호

지난 2019년 11월 허리케인이 온두라스 북부 카리브해를 강타했다. 그 일대가 초토화되었다. 지역의 1/4이 물에 잠기고, 활주로나 잠겨 공항이 마비될 정도였다. 낙동강처럼 큰 강의 독이 무너져 주민들의 피해도 컸다. 피해를 수습하기도 전에 한 번 더 큰 허리케인이 몰아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피해를 복구하고 있지만, 구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았다. 세이비따 마을도 마찬가지였다. 집 12채도 모조리 쓸려 내려갔다.

세이비따 마을은 현지인들도 찾기 꺼리는 외지고 가난한 동네다. 처음 세이비따 마을을 방문하고 6개월 동안 길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다 한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했다. 한 가정당 흙벽돌 50개씩을 찍어 교회 틀을 만들었다. 성도들이 지붕을 올리고 창틀을 만들었다. 헌금을 모아서 외벽에 시멘트도 발랐다. 그렇게 20여 가정 40~50명의 성도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완성되었다. 지금은 35여 가정이 출석하는데 모두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다.

세이비따 마을 교회 마르코 목사님은 허리케인이 오기 20일 전부터 금식기도를 하고 계셨다. 자비량 목회자라 커피와 옥수수 농사를



강민호 선교사, NGO 더멋진세상, 세이비따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으면서도 계속 금식기도를 강행하셨다. 금식기도를 하면서 마르코 목사님은 마을에 하얗고 깨끗한 집들이 세워지는 환상을 보셨다.

허리케인이 마을을 강타했고 주민들은 집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나도 세이비따 마을에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을 청년들이 삼으로 길을 내 밭마을에 겨우 도움을 청했다. 외벽에 시멘트를 바른 교

회만 허리케인 피해를 입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NGO 더멋진세상의 지원으로 세이비따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깨끗한 새집을 선물하기로 했다. 교회 성도들과 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건축에 참여했다. 도로유실로 천장만 올려놓고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는데도 주민들은 바닥을 다지고 생활할 만큼 집이 절실했다.

교회에 반감을 품고 있던 주민들도 긴급구호 식료품을 받고서는 건축 기초공사에 동참하기도 했다. 교회 성도들도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이번에 열린 세례식에서는 6명이 세례를 받았다. 교회가 세워지고 섬김이 이어지면서 희망이 없는 마을이었던 세이비따 마을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주변에 세이비따 마을의 변화가 소문이 나면서 희망의 마을이 되고 있다.

세이비따 마을교회의 최종 목표는 모든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마르코 목사님과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다. 믿지 않는 주민들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변화의 숨은 공로자는 NGO 더멋진세상이다. 바울의 심정으로 나 혼자 세이비따 마을을 섬길 때는 한계가 있었다. 도무지 혼자서는 도울 수 없는 어려운 일들도 NGO 더멋진세상이 함께 한 이후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울 수 있었다.

세이비따 마을 주민들의 고백과 간증에는 NGO 더멋진세상이 늘 함께 있다. 세이비따 마을에서 10년의 섬김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한다.

/ 강민호 선교사(온두라스)



코로나19, '이주민'과 함께 함께 극복합시다!

부천역 외국인 노숙자 51일간의 행적

이 글을 통해 한 여름에 겨울 패딩을 입은 채 부천역에 쓰러져 있던 외국인 노숙자 영진(가명) 씨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영진 씨는 지난 7월 폭염의 날씨에 겨울 패딩을 입고 쓰러졌고, 119에 의해 구조되었다. 응급조치는 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마땅히 영진 씨를 이송할 곳이 없었던 모양이다. 수소문 끝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내국인 노숙자 자활센터를 찾았다. 자활센터장의 배려로 영진 씨가 임시로 입소할 수 있었다.

영진 씨의 주소지는 경기도 김포시 양곡동이었다. 지난해부터 원인 모를 건강 악화로 일을 할 수 없었고, 월세와 공과금 미납으로 지난 3월 임대주택에서 강제 퇴거를 당했다. 김포시 시가지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5월부터 7월까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퇴원한 이후에는 마땅한 거주지가 없어서 또 노숙 생활을 했다.

영진 씨의 체류자격 확인과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고 확인에 나섰다. 다행히 정지된 의료보험 수급자격을 되살려 부천의 한 병원에서 기본 건강검진을 받았다. 원인 불명의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영진 씨의 영양원 입소를 위해 장기요양 신청 절차를 밟는데 예상하지 못 한 일에 모두가 곤경에 처했



중국인 영진 씨(가명)는 송인선 집사(경기글로벌센터)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중국으로 돌아갔다.

다.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했는데 뇌경색은 진단 이후 약 6개월이 경과 되어야 의료소견서 발급이 가능했다. 더 이상 영진 씨를 보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긴 대화 끝에 영진 씨의 요청으로 중국대사관으로 영진 씨를 보내드리기로 했다. 그런데 9월 3일경 김포의 한 외국인센터에서 영진 씨가 김포시청 여성가족과에 머물고 있다고 연락이 왔다. 자초지종을 들

어보니 중국대사관 출입에 필요한 QR코드가 없어서 중국대사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노숙자 자활센터로 돌아왔다고 한다. 노숙자 자활센터장이 영진 씨가 김포시청의 지원으로 김포의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을 확인하고 영진 씨를 김포시청으로 데려다 준 것이다. 외국인 노숙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마주한 속상함에 KBS 기사를 동반

하고 9월 9일 저녁 9시 뉴스 방송에 도움을 호소했다. 영진 씨의 향후 거취를 논의하던 중에 영진 씨의 의사를 존중해 고향으로 출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용은 모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출국 준비를 시작했다. 병원에서 PCR검사를 받고, QR코드는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생성해 프린트했다. 모든 출국 준비를 마치고 9월 10일 대한항공 인천-선양 08시 05분발 항공기로 영진 씨를 고향으로 보내드렸다. 중국 격리비용과 고향까지 이동하는 여행경비로 총 150만 원을 전달했다. 그동안 많은 이주민들을 도왔지만 영진 씨 사례만큼 애간장을 태운 일이 없었다.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지는 건강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냈고, 시시각각 변하는 영진 씨의 마음으로 정말 애간장을 태웠다. 영진 씨가 고향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온누리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외국인 노숙자'라는 표현 자체가 생소할 것 같다. '그냥 추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니다. 이주민 200만 시대 더 이상 외국인 노숙자가 생소하지 않다. 이제는 외국인 노숙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 송인선 집사(경기글로벌센터)

외국인 노숙자 영진 씨



스포츠인들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허그 콘서트'에 방송인 이무송, 트로트 가수 신인선이 출연했다.

“그 좋은 친구 예수님 만나세요!”

스포츠인을 위한 온라인 맞춤형도집회 '허그 콘서트'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와 '국가대표 신우회'가 함께 지난달 30일(목) 스포츠인을 위한 온라인(Zoom) 맞춤형도집회 '허그 콘서트'를 개최했다. 국가대표 신우회, FCA(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 전 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석했다.

이날 허그 콘서트는 방송인 이무송이 진행했고, 트로트 가수 신인선, 래퍼 지푸, 장해진 선수(양궁), 김병

주 선수(수구), 안바울 선수(유도) 등이 게스트로 출연해서 토크쇼와 축하 공연 등을 선보였다.

메시지는 여성민 목사(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장)가 전했다. 여목사는 “어려울 때 함께 하는 친구,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며 “그 좋은 친구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으로 운동선수

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안래현 장로(국가대표 신우회)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선수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고, 송건 선수(수구 국가대표)는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천국 가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축복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90일의 기적’ 성경완독자 성경책 배부

10월 2일부터 17일까지, 택배수령도 가능

지난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된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완독자들에게 선물(성경책)을 나눠준다. 10월 2일과 3일, 9일과 10일 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대전, 인천, 강동은 누리교회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남양주, 평택, 서산, 양지온 누리교회는 자체 배부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16일, 17일까지 배부

한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택배로 성경책을 받으면 된다. 두란노서점 온라인스토어(www.duranno.com/store/onnuri)에서 신청하면 된다. 택배비는 별도다.

교회가 지난 5월 초 전달한 모바일 성경쿠폰을 보여주고 성경책을 수령하면 된다.

문의: 02-796-2310

온누리통일학교 수강생 모집

10월 23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온라인

온누리통일학교 기본과정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누리통일학교는 북한에 대해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분단된 한반도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통일 역사’ 등을

주제로 성경공부와 강의, 토크콘서트 등이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구글 폼(<https://forms.gle/H1VJBx492aMW6M4o6>)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등록하면 된다. 문자메시지로 등록할 때는 이름, 소속, 출생년도를 보내야 한다. 회비 2만 원(교재비 포함). 문의: 010-4337-5927

부천 일대일제자양육 대외사역팀, 인천 성광교회에 일대일제자양육 전수

부천 일대일제자양육 대외사역팀의 활약이 대단하다. 올해 3월부터 인천시 부평구 성광교회에 일대일제자양육을 전수하고 있다. 인천 성광교회에서는 ‘전교인 일대일제



자양육 양육자화’를 목표로 일대일제자양육을 전수받고 있다. 1차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과정(41명)이 끝났고, 2차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과정(43명)과 1차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 과정(38명)이 이어지고 있다. 부천온누리교회 일대일제자양육 대외사역팀의 양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남세주 목사(인천 성공교회)는 “일대일제자양육이 성광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지경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참가자 모집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모반은 10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8주 과정), 청소년반은 11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7주 과정),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

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11월 6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부모이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2-793-9686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 모집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드림어게인스쿨은 이혼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

험하며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수강신청은 10월 22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40명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4만 원.

문의: 010-2539-5665

대학청년부 가을 수련회

W공동체, Pole2대학부

대학청년부 W공동체, Pole2대학부에서 가을 수련회를 개최한다.

W청년부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Where’를 주제로 여의도 이룸과 줌(Zoom)으로 수련회를 연다. 15일 오후 이상진 목사 ‘Everywhere’, 16일 오전 한건수 대표 ‘Anywhere’, 16일 오후 장경철 교수 ‘Nowhere’, 16일 오후 김현미 목사 ‘Somewhere’, 17일(주일) 김윤식 목사 ‘Elsewhere’를 주제로 강의한

다.

Pole2대학부 수련회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줌(Zoom)으로 열린다. 주제는 ‘Fall in Love’이다. 요한 일서 4장 16절 말씀에서 따왔다.

한편 길공동체에서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신학생들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이삭헌금’을 봉헌하고 있다. 공동체 계좌(카카오뱅크 3333-13-7071622 이은진)로 참여하면 된다.

젊은부부학교 52기 참가자 모집

젊은부부학교 5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젊은부부학교는 하나님의 가정원리를 통해서 축복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

참가신청은 카카오톡에서 ‘온누리 젊은부부학교’를 검색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이다. 10월 9일까지 입금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남편(010-3476-7716)

아내(010-4827-5298)

아름다운동행 참가자 모집

아름다운동행 커플링 지원자만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아름다운동행은 ‘길을 떠나는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 ‘Finding Self’, ‘배우자 바로 알기’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10월 11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 당 5만 원(교재비 포함).

문의: 010-9041-5538

10월 화요성령집회 ‘복음의 발견’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대학청년부 10월 화요성령집회 ‘복음의 발견’이 시작된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10월 화요성령집회 ‘복음의 발견’에서는 5일 이서진 목사 ‘사랑이 구원의 이유입니다’ (요 3:16-18), 12일 김승수 목사 ‘믿음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롬 1:8-17), 19일 최성민 목사 ‘성령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행 2:36-41), 26일 김승수 목사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마 16:13-19)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화요성령집회에 참석하기 원하는 청년들은 온누리교회 예배예약 시스템에서 반드시 예배 예약을 해야 한다. 예배당 예배를 드릴 때는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 성광교회 일대일제자양육 간증



/ 김대건 집사(성광교회)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멈춰있던 양육의 부재를 느끼고, 말씀과 교육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3월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생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수선했던 분위기였다.

개인적으로 올해 구역예배 인도자로 섬기게 되면서 많은 부담감이 있었다. 올해부터 구역예배 인도자를 맡아달라는 원로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걀 말기는 했는데, 누구보다 내 그릇을 잘 알기에 참 부담스럽고 당혹스러웠다. 구역예배는 교안을 중심으로 나눔을 갖는데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까지 준비가 필요했다. 그렇게 준비해도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아 어려워 하던 차에 시작된 일대일제자양육은 가뭇에 단비와 같았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담임목사님은 성광교회 모든 교인이 온누리교회로부터 일대일제자양육을 전수받겠다고 공표하셨다. 감사하게도 부천온누리교회에서 일대일제자양육을 전수해주기로 했다. 첫 회에 40여 명의 성도가 자원해서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았다. 나도 그중 하나였다. 선교회와 구역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새로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다. 양육자가 되신 부천온누리교회

이호경 안수집사님이 그동안 나의 경험에서 오는 좁은 시야를 넓혀주고, 갈증을 해소해 주었다. 예수님을 모르던 개인에서 순종하는 청지기로의 거룩한 변화는 단순한 신앙의 연차나 직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을 다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청년 때부터 나름 각종 프로그램 등으로 양육을 적지 않게 받아왔는데도 명쾌하지 않았던 ‘왜 양육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처음 교육과정을 접할 때는 ‘리더십’에 초점이 있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기에 이 과정에서 올바르게 배우고 많이 익혀서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 일대일제자양육을 마친 지금 나의 시선은 ‘팔로워십’에 향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어야,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올바르게 따라야 구역에서도, 선교회에서도, 가정과 사회에서도 말씀이, 향기가 전달될 것이다. 내가 올바른 제자가 된다면, 삶으로 좋은 리더가 되리라 생각한다. 신앙의 완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완성을 위해 걷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 가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

■ 창조신앙아카데미 수료 간증



/ 강은하 성도(송파A공동체)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낀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비밀을 처음 접한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저 신기했다. 차세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창세기를 설명할 때는 지식적인 면 위주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런데 뭘지 모를 아쉬움이 있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에게 보다 깊은 창조의 신비를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강의를 신청했다.

과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에게 듣는 성경 이야기는 정말 새로웠다. 첫 번째 강의에서 기독교의 핵심사건인 창조와 부활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특히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를 차원의 형태로 설명하신 부분이 많은 공감이 갔다. 1차원에서는 2차원의 움직임을 일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이해할 수 없다. 그저 신비로운 현상들로 접하게 된다. 그렇기에 3차원의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그보다 높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 모두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부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각자 독특한 창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임을 배우는 시간도 정말 귀했다. 특히 차세대 학생들에게 각자가 특별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세계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각자 독특한 창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임을 인식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아의 방주 속 과학은 정말 놀라웠다. 방주가 물 위에 떠서 물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달았다.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서 1년을 버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구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알게 되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의 구원 역사에 동행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과 우주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손길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낀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심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 창조신앙아카데미를 통해 배운 귀한 내용을 차세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 전도폭발훈련 수료 간증



/ 허진경 성도(마포공동체)

거절에 대한 상처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전도폭발훈련을 시작하면서 4단계까지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1단계를 수료하고 망설임 없이 2단계를 지원했다. 1단계 때는 처음 접하는 복음 전문을 계속 암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인지 2단계에서 복음 제시를 할 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전도대상자를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에 갈 확신과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비신자들은 전도폭발훈련 수첩에 이름을 적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바라보게 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왜 전도를 해야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부터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하기에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만든다. 또한 전도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리임을 깨달았다.

전도폭발훈련 2단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도대상자는 스무 살에 만난 친구다. 늘 전도하고 싶었지만 친한 친구일수록 복음을 전하

는 것이 더 어려웠다. 오랜 시간 미뤄온 일이었다. 친구가 다섯 자녀의 엄마라 그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거절했다. 절에 가야 마음이 편하다는 말도 했다. 친구에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다. 친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미안하기도 했고, 이제부터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자주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안에 거절에 대한 상처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 있음을 보고 놀라고 감사했다.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다. 부족한 내가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 전도할 때마다 기도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켈기대회 간증



/ 김익래 집사(중종로공동체)

야마가타 러브소나타에서도

오는 10월 28일 일본 야마가타에서 러브소나타가 막 오른다. 야마가타 현지에서는 러브소나타 본대회에 앞서 지난 8월 29일 온라인으로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켈기대회’를 진행했다. 강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켈기’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돌우고 기운을 내서 힘차게 일어나”라고 되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국제적 비상사태로 인해서 지난해 치러졌어야 할 야마가타 러브소나타가 한 해 미뤄졌다. 이제 목표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모두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운을 내어 힘차게 일어나야 한다.

이번 켈기대회는 야마가타남부교회에서 열렸다. 유튜브로 한국의 러브소나타 담당목사님과 실행위원들, 스태프, 관계자들도 참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함께 하지 못하는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더욱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왔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간구하는 뜨거운 찬양과 한국과 일본 곳곳에서 묵묵히 기도와 물질과 헌신의 시간으로 섬겨 주는 손길들의 동영상도 상영되었

다. 예쁜 화관들도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특히 “러브소나타를 통해서 개인과 가족, 지역 사회와 나아가 일본 열도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키기를 소망한다”는 치다 지로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두 팔을 한껏 벌리고 목소리 높여 부르던 ‘God bless you’ 축복송도 너무 좋았다. 모든 켈기대회 순서마다 현지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열망, 간절함이 절실히 느껴졌다. 현실적 장벽을 뛰어넘고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동영상 속 현지 성도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온누리교회의 기도의 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러브소나타의 네 가지 꿈인 부흥, 화해, 선교, 문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야마가타 러브소나타에서도 충만하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

장로칼럼

그리운 경배와 찬양



이병현 장로
(양지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참 잘 시키셨다. 처음 나를 보시고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마음을 쓰시며 다양한 일을 맡기셨다. 하루는 무척 더운 여름이었는데 그날 교회 청소가 조금 소홀했었다 보다. 주일 예배에서 설교하던 하용조 목사님이 ‘내가 군인 때 우리 하사관이 시간만 나면 옷통을 벗고 내무반을 청소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무슨 소린가 하니 교회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말씀이었다. 말 속의 뜻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그 예배가 끝나고 곧장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을 청소했던 기억이 난다.

하용조 목사님이 2000선교본부가 시작될 때 나에게 2000선교본부 일을 맡기셨다. 2000선교 일을 한창 하고 있었는데 두란노해외선교회가 만들어졌다면서 거기 일을 거들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별안간 경배와 찬양을 섬겨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때는 내가 공장을 하나 차려서 미국과 교섭하며 수출을 준비할 때였다. 참 중요한 시기라 하용조 목사님께 6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아닙니다. 당장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전에 경배와 찬양 일을 하고 오후에 공장일을 하겠다고 재차 요청했다.

‘아닙니다. 풀타임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 고집을 누가 당하랴. 하용조 목사님을 따라 교회 일을 하느라, 먹고 살기 위해 공장을 지켜야 하느라 영적 전쟁을 했다. 하용조 목사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공장은 청년에게 맡기고 경배와 찬양을 섬기

기 시작했다. 공장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나는 경배와 찬양 청년들과 함께 일본, 대만 각지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다. 20~30대 혈기 왕성한 경배와 찬양 청년들과 70살이 다 되가는 노인이 동역하러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힘들어 보였는지 지금은 과테말라에 가 있는 찬영이, 전주에 있는 문택이와 청년들이 나를 참 잘 챙겨줬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경배와 찬양과 함께한 사역이 사흘간 7만 명이 모인 잠실운동장 집회였다. 집회를 준비하며 잠실운동장을 빌리려고 방문했더니 종교단체에는 빌려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잠실운동장을 어디서 관리하느냐고 물었더니 시 비서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길로 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 비서실장이 어느 교회 장로였는데 시 비서실장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염려 말고 쓰라’는 호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잠실운동장을 무료로 쓰기로 하고 치안 유지를 위해 인근 파출소를 방문했다. 그런데 ‘인원을 대거 투입해야 하니 비용을 좀 달라’고 했다. ‘경배와 찬양에 쓰는 그 비용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집회 당일 주차장 문을 차단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감사하게도 사흘 동안 7만 명이 모였는데 각자 지하철을 타고 오고, 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강변으로, 주변 주차장으로 나눠서 주차하면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용조 목사님도 이 광경을 보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셨다. 경배와 찬양은 당시 한국 교회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 나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즈음은 내가 선교지로 나갈지 말지 고민을 할 때였다. 잠실운동장 집회를 마치고 “내가 나이가 많지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경배와 찬양을 생각하면 고맙고 그리운 얼굴들이 참 많이 떠오른다. 한국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경배와 찬양이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기도한다.

권사칼럼

추석 명절, 그 감사의 뜨락에서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긴 추석 연휴가 지났다. 이번 추석은 종중 식구들이 모여 별초도 하고, 추석 성묘 겸 차례도 미리 간단히 모신 다음 점심은 맛난 외식하며 즐겁게 보냈다. 친척이 다 같이 모이기도 어려운데 만난 김에 추석 차례도 미리 지내고 추석날은 각자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보내니 명절 스트레스 받는 사람 없이 두루 행복해서 좋았다.

기다리던 아들 내외가 밤늦게 도착했다. 세 식구와 추석날 갖춰 먹으려고 음식 아꼈 일도 없고, 격식 갖춰 상 차릴 일도 없으니 그저 하루 한 가지씩만 맛난 것 해 먹으면 힘도 안 들고 매일 명절로 지낼 수 있으니 서로 행복한 일이다. 시댁에 와도 일할 것 없으니 며느리도 명절에 시골 와서 지내는 걸 편안하게 생각한다. 서로 준비한 선물들도 나누니 올 추석은 행복이 가득하다.

연휴 이틀째, 주일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고 나니 미안할 정도로 한가하다. 명절에 전이라도 지지며 기름 냄새를 풍겨야 제격인데 며느리랑 살찌는 음식은 해 먹지 말자고 의기투합하여 가능하면 샐러드나 나물 위주의 소박한 식탁을 차리려 했다. 저녁에는 딸 생일 즈음이라 오랜만에 프랑스 가정식 레스토랑에서 온 식구가 모이기로 했다. 딸 덕분에 프랑스 정통 달팽이 요리도 맛보고, 송아지 스테이크의 부드러운 맛과 스파클링 샤도네이 백포도주의 향에 취해 한껏 행복하고 달달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독백이 가슴에 차올랐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를 든든히 호위 무사 삼아 이

렇게 무탈하게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절로 넘쳤다.

추석 전날, 미리 성묘를 다녀오려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하늘빛이 어찌 이다지도 고울 수가 있을까! 남편 이름과 나란히 미리 새겨 놓은 ‘조은미 권사 지묘’라는 묘비를 보면 늘 숙연해진다.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안 되는데 늘 꽃처럼 밝고 환하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나머지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된다. 남편 앞에 서면 늘 편안해지고 따사로운 온기가 나를 감싼다. 덕분에 편히 잘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그이의 미소가 하늘에 뜬다. 나도 마주 웃어준다.

명절 아침, 다른 날보다 일찍 잠이 깼다. 목욕재계하는 마음으로 일찍 샤워를 마치고 집 청소를 서둘렀다. 네 분의 영정을 모셔놓고 정원에서 싱싱한 꽃을 잘라 화병에 소담스레 꽂고 촛불을 밝힌다. 차례 음식을 진설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예를 다해 추석감사추도예배를 세 식구가 모여 앉아 경건하게 드린다. 사진 속에 살아계시는 사랑했던 분들과의 추억담을 나누며 늘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던 그분들의 믿음의 유산에 감사한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명절 뒤 끝은 늘 썰물 빠져나간 갯벌처럼 썰렁했다. 모두 돌아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고요하게 평화가 내린다. 명절은 명절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날마다 명절처럼 북적이면 기쁨보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날들이 되리라. 김치, 된장찌개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듯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이 소중한 것이다. 명절 연휴 동안 특별한 기쁨으로 행복하게 해주었던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이만큼 건강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구름에 가려 달은 보이지 않았지만, 추석 동그런 보름달처럼 늘 가슴에 달 하나 띄우고 주변을 환하게 밝히며 살아가고 싶다.

신앙에세이



노치형 목사
(중종로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날 때 어떤 소리를 울려서 내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번 에 처음 생각했다. “또 옷의 밑단에는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과 고운 베실로 석류를 둘러 달고 또 순금으로 된 종을 만들어 밑단의 석류 사이 사이에 달았습니다. 곧 겉옷 밑단을 빙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교대로 달아 제사장 일을 할 때 입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출 39:24-26).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옷을 입고 움직이게 되면 순금 종과 석류 모양이 서

로 부딪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순금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만날 때도 어떤 소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다.

물론 이 본문을 배운 적이 있고, 설교한 경험도 있다. 그때에도 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성도들과 나눴다. 그때마다 나와 성도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두려움의 소리였고, 가슴 졸이는 소리였다. (레위기 16장에 근거해 대제사장의 대속죄일 복장에 흰 세마포만 입어야 했다는 주장이 옳다고 여기지만, 유대인의 신앙 역사 속에서 다른 견해들이 있기에) 구전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이 드러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게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허리에 줄을 묶어 입장하게 하고, 옷 밑단에 달린 순금 종과 석류 모양이

부딪치며 내는 소리를 들으며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있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소리가 오랜 시간 들리지 않으면 ‘죽었나보다’ 생각하며 대제사장을 묶은 줄을 당겨보아 확인했다고 한다.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 들려오는 순금 종소리는 공포의 종소리인 것이다.

나는 오늘 새로운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순금 종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하심’과 세 가지 색깔의 실들로 짜인 석류 모양의 방울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나 맑고 밝고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게 된다는 사실이다.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다. 거룩한 옷을 갈아입은 대제사장은 성막의 뜰을 걸었을 것이고, 성소에 들어갔을 것이다. 대제사장의 걸음 따라 순금 종과 석류 모양의 방울이 서로 부딪혀 맑고 은은한 소리를 들려줬을 것이다. 불현듯 어릴 때 자주 불렀던 ‘종소리’라는 동요가 떠올랐다.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온다 희망의 앞날을 알려주려~”

‘무엇이 이 시대에 희망의 종소리가 될 수 있을까?’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가 떠올랐다.

“교회만이 이 시대의 대안이며,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요즘, 더욱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나 대안이 될 수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때, 하용조 목사님의 선포가 내 귀에 희망의 종소리로 울려 퍼졌다. 그리고 ‘사랑의 종소리’라는 찬양이 떠올랐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정결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울려 나오는 사랑의 종소리를 모두가 듣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세상 모두가 교회를 이 시대의 희망으로 다시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주일강단

<4면에 이어>

팬데믹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나 살아 있는 채로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은 아녜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에 생명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아마 홍수 심판 이전의 인간들이 생으로 자주 식용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 또한 생물에 대한 존중입니다. 동물 상호 간에는 살아 있는 채로 먹지만,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명에도 위험이 되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살아 있는 채로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이 수인 감염 질병이 일어난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셋째, 인간은 타인의 생명을 서로 지켜 주는 공동체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6-6절).

하나님은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동물의 생명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존중하도록 만드셨는데 하물며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셨겠습니까?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해 놓은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살인은 살인자의 마음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때로 법에는 걸리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기에 세상에서는 어떤 형벌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살인에 대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고, 살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살인, 형제 간에 살인, 자녀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살인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한 엄격한 경계와 회개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고한 피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아프간이나 여러 나라에 하나님이 그 피의 대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땅은 점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홍수로는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넷째,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는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홍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사실 이 물로도 세상이 뒤덮힐 수 있습니다. 일부 지진이나 해일 피해가 있지만, 지구 전체 물의 요동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최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붙잡아 주십니까? 왜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증표로 무지개를 구름 위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무지개가 처음 나타났는지, 아니면 자주 나타났던 무지개를 증표로 삼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루터주의자들은 이때 처음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칼뱅은 이미 있던 무지개를 증표로 택하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빛이 굴절해서 여러 빛깔을 내는 것은 이미 존재했을 것이

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무지개 출현은 이때 처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나타났느냐가 아니라 무지개가 하나님 일반 은혜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일반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만, 마지막 심판이 다가올 것입니다. 물의 심판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지만, 불의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붙잡고 계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무지개는 폭풍과 햇빛의 결합입니다.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나오는 이유는 폭풍과 햇빛이 조화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인한 재앙과 하나님 은혜의 조합으로 무지개가 발생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가 요즘 어떤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동성애자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징표를 영동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인간들의 권리를 상징하는 징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악한 세상에도 공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심판을 연기시키고,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스스로 가로막고, 거부하고, 등을 돌리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신 법칙,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고, 생명이 반성하도록 하고, 생명을 돌보도록 하고, 창조세계 전체를 조화있게 하는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 가운데 복을 더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바르게 지키고, 세계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 있는 나라가 되어서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지도자를 택할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인본주의와 유토피아, 진화론에 사로잡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창조질서를 지킬 수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순교의 피로 젖은 아프간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편지

두 달 전 아프간 난민 N 형제를 만났습니다. N 형제는 3년 전 자기가 살던 아프간 고향 마을에서 유튜브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 세 명이 참수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 아내와 함께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N 형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집안에서 배교자가 태어날 수 없다며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그리스도인 세 명이 아프간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단기선교를 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서 옆 나라인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아프간에서 도망쳐 온 N 형제를 지방 전도여행 중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우즈베키스탄 단기선교팀과 만나 자신의 허리 통증이 그 자리에서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재집권하면서 아프간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자들의 분노와 외침에 탄압의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힘겨운 시간 속에서 고통과 슬픔에 찌들어 삶의 기쁨을 상실해 버린 사람들, 또다시 시작되는 억압에 분노하며 울부짖는 사람들, 두려움으로 숨을 죽이고 침묵하는 사람들,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자행하면서 신의 명령에 순종과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속임 속에 붙잡힌 탈레반들...

주님! 깊은 어둠이 아프간의 하늘을 덮어버린 것 같고, 삶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만 같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과 오랜 전쟁으로 땅의 생명이 모두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린 듯한 아프간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아프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여호와와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프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미래와 희

망을 주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고 산 자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 평안이 찾아옴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주여! 모든 상황과 사건을 초월해서 아프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신음하는 무리에게 위로와 평안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생명의 피로 세운 교회가 그 빛을 잃고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복음의 참 빛을 경험한 무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지하 작은 창고에 숨어 숨죽여 부르짖는 기도에도 성령의 불을 지펴 아프간 땅에 어둠을 대적하고 승리를 가져오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프간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창조주께서 영적 권위로 통치하시

는 아프간을 바라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로 떨어져 죽은 생명이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도록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며 전진하는 예수의 군대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뵈는 그 순간까지 아프간에서 확장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순교의 피로 젖은 아프간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듯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바라며 기다릴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영혼들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K 선교사

***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중보기도’에 올라오는 기도문을 인용했습니다.**

온더로드

명품보컬 '조셉 붓소', 화음장인 '지영&지후', 비트천재 '요시'가
위로와 찬양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갑니다.

▶ 유튜브 **KNOCK노크** 채널 검색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업로드



Grace ****

믿는 사람도 재전도당하는 영상!



Hailey **

온세상에 복음을 전할 귀한 네 분의 은사로 이 가을이
포옥 물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월 15일(금) LIVE 줌콘서트 개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노크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